

문화

시·도광역 문화재단 현황

구분	출범일 (등기일기준)	최초출연금	기금조성목표액	기금규모 (2009년말)	기금규모 (2009년말)	재단이사장	대표이사	현 인원	출범시 인원	2009예산액	2010예산액
경기문화재단	1997. 4.30	335억	1,000억	1,030억	1,030억	경기지사	권영빈	189명	15명	915억	635억
강원문화재단	1999.12.28	60억	200억	172억	188억	강원지사	김학철	45명	3명	126억5천만원	108억5천만원
제주문화예술회관	2000.12.31	45억	300억	127억	137억	강영철	강영철	13명	11명	46억	31억7천만원
서울문화재단	2004. 3.15	500억	3,000억	1,126억	1,253억	박범신	안호상	71명	40명	375억	326억
인천문화재단	2004.11.26	395억	1,000억	482억	504억	인천시장	심갑섭	63명	13명	150억	97억
광주문화예술회관	2004.12. 1	45억	100억	49억	50억	오건탁	오건탁	6명	6명	54억	45억
부산문화재단	2009. 1.21	113억	500억	120억	114억	허남식	강남주	6명	6명	47억4천만원	89억
대구문화재단	2009. 4.16	194억	500억	195억	185억	김범일	김순규	15명	6명	22억	61억
전남문화예술회관	2009. 5.29	113억	200억	104억	111억	전남지사	문인수	2명	21명	2억	3억
대전문화재단	2009. 9.28	90억	500억	88억	89억	대전시장	박강수	10명	10명	-	32억
경남문화재단	2010. 2.18	115억	1,000억	107억	113억	경남지사	이만기	10명	8명	-	134억
전북문화재단	허반기 예정	-	-	169억	-	-	-	-	9~15명	-	-
충북문화재단	9월 예정	150억	200억	132억	-	-	-	-	-	-	-

(2009년 말 현재)

기금 배분 업무 그치고 규모도 전국 꼴찌

광주문진위 대대적 수술 불가피

강원대 광주시장 당선자가 시 산하 기관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위원회(이하 광주문진위)와 광주공연예술재단 등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3기 위원회가 출범한 광주문진위의 위상 변화 등이 관심의 초점이다. 광주문진위는 강 당선자의 발원 이전부터 기금 배분에 머물고 있는 현 위상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는 등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내·외부에서 모두 흘러나왔고, 일부에서는 공연예술재단과 통합문제로 제기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 45억원이었던 기금이 5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타 지역들은 지자체가 꾸준히 기금을 출연하면서 기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

광주문진위의 경우 시의 출연금에만 의존, 자체 기금 확보도 없었다. 대구는 '10기업 1문화 운동'을 전개, 대구은행 1억원 등 2억여원을 조달했고,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책개발 팀 신설, 자체 사업도 개발해야=각 문화재단들은 지역의

정책팀 신설, 자체 사업 등은 광주문진위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지만 현 인력 구조로는 업무를 못낼 상황이다. 현재 광주문진위의 인력은 6명, 10개 재단 중 전담을 제외하고 가장 인원수가 적다. 지역 문화시설 운영까지 맡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무려 189명이 근무중이며 제주(13명), 대구(15명), 강원(45명) 등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숫자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 내부에서도 "문진위의 역량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 대부분 사업의

하고 있으며 서울은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또 최근 인천시가 지역에서 열리는 율미도국제음악제 등 8개 축제를 하나로 묶어 '인천펜타포츠축제'로 통합하고 운영을 인천문화재단에게 맡기는 등 지역문화재단이 대형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는 많다.

어차피 공연예술재단 산하에 각 행사를 진행할 조직위원회 등을 다시 꾸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독립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연예술재단은 최근 이사장을 포함, 공연예술실장 등 7명을 새로 뽑았지만 문화전문가가 거의 없어 재단 운영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4억원 수준인 재단 출연금을 10년 이내에 1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광주문진기금 사례에서 보듯, 기금 적립이 만만찮은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두 단체를 통합, 기금 확보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일부에서는 공연예술재단을 존속시키는 대신 같은 공연 파트인 (사)임방울극단진흥회와 통합을 진행하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진흥회에는 이사장을 포함, 모두 4명이 재직중이며 예산은 5억 3000만원이다.

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주업무가 IT와 문화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문진위 등과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연예술재단 등과 통합 논의 활발

'규모 있는' 문화 싱크탱크 만들어야

중장기 문화 정책 등을 만들고 문화 사업을 기획하는 '문화기획팀'과 '정책기획팀'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문진위는 기획 파트가 없고, 자체 사업도 전무하다.

인천은 해안동 옛 창고지대를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킨 '인천아트플랫폼'과 도서관 운영업무를 맡고 있으며 제주와 강원도 문화재단연구소 운영 중이다. 또 부산의 조선통신사 사업, 제주의 제주어사전 편찬 사업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체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

미그림을 다 그린 후 '집행'만 맡기는 등 지나친 간섭을 일삼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방울 진흥회와 통합 의견도=문화계 일부에서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정음성국제음악제 등을 개최하기 위해 최근 설립한 광주공연예술재단과 광주문진위를 통합, '규모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어 지역문화의 싱크탱크로 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원문화재단은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를 개최

광주극장, 칸 수상 한국영화 만나다

이창동 '시' 홍상수 '하하하' 배창호 '여행' 김소형 '경' 상영

광주극장이 올 칸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쟁 부문 각본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의 '시'는 중학교 다니는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주인공 미자가 동네 문화원에서 우연히 시강좌를 듣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칸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각본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의 '시'

칸에서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 떠올랐던 윤정희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김용택 시인, 최순순 의원 등도 얼굴을 보인다.

칸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홍상수 감독의 10번째 장편영화 '하하하'도 상영된다.

출연한다.

올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한 '하하하'는 어느 여름날 통영에 다녀온 두 남자가 들려주는 유쾌한 이야기다.

'경'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동생을 찾아나선 언니 정경, 언니를 떠난 동생 후경 두 자매가 엄마의 기억과 마주하는 아름다운 여행을 그린 작품이다.

김상경을 비롯해 유준상·예지원·문소리·김영호·윤여정 등이

또 영화평론가 김소형이 만든

한국 민속학 대부 지춘상 교수 유고집

'동아시아 민속학' 출간

한국 민속학 대부 고(故)지춘상 전남대 교수(1931~2009년)의 유고집 '동아시아 민속학'(민속원 펴냄)이 나왔다.

저자인 지 교수는 민속학자로서 남기고 싶은 몇 편의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던 중 지난해 5월 논문집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이 책은 지 교수의 유고 1주기를 맞아 제자들이 생전의 뜻을 받들어 한국의 민요와 민속놀이, 비교민속학의 진전 등 2부로 나눠 정리했다.



제1부는 전남의 농요와 민요의 이론적 토대를 정리한 '민요의 압운형태'와 고씨윤놀이의 기원을 밝힌 '줄다리기와 고씨윤놀이', '지신밟기와 마당밟이굿', '살랭이놀이', '아이놀이' 등 총 5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제2부에는 한국과 오키나와, 중국 조선족의 민속을 비교연구한 4편의 논문이 실렸다.

함평 출신인 지 교수는 광주고과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대학원장과 임방울문화재단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남의 농요'와 '전남의 민요', '남도민속학 개설' 등 저서를 남겼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미술대전 출품작 공모

9개 부문 내일까지

광주시는 '제23회 광주시미술대전' 출품작을 16~17일 양일간 공모한다.

광주시미술협회(회장 정순이)와 한국건축가협회(광주지회장 강남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전은 한 국화, 서양화(수채화), 조각, 공예, 서

예(전각), 건축, 판화, 문인화, 디자인 등 총 9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는 서양화(수채화), 한국화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1차 사진접수 없이 실물 작품으로 접수하며 각 부문별로 규격이 일부 변경됐다.

출품작 수는 1인당 2점 이내로, 건축 분야는 3인 이내, 디자인 분야는 2인 이내(단, 일러스트레이션은 1인 1점)로 한정된다. 심사는 18일에 실시되며, 결과 발표는 21일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광주미술협회 홈페이지(www.gwangjuart.org)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각 부문별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을 수여하고 특선과 입선작도 선정한다. 입선작은 7월2일부터 7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222-8053, 062-376-455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무토착수 시공방법

누구도 할수없는 100% 방수성!!

실용방수제는 가정부터 공장까지 적용됩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수주 시 100% 방수성!!

실용방수제는 가정부터 공장까지 적용됩니다.

홍성, 지하실, 퇴비, 무지한 시설 등 방수용 요하는 곳

최신! 다량의 방수전문기사 파견방수를 합니다.

특히! 방수용 전문역사 방수전문가로 방수 합니다.

무등산 문인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산방부모와 '달산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228-0168, 010-5103-4004, 010-7179-0108